



제주영리병원 재판 ‘차일피일’

소송 제기 10개월 넘도록 1차 변론기일도 못 정해 법원 “처리할 사건 많아... 지연할 특별 이유 없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제주도가 벌이고 있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취소 소송에 대한 재판이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올해 2월 14일 제주지법에 제기한 ‘외국인으로 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23일 현재까지 정하지 못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개월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못한 것이다. 이 소송은 제주지법 제1행정부가 맡고 있다. 재판이 열리지 않자 녹지 측은

지난 10월 1일 법원에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도 “왜 재판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는 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처리할 사건이 많이 밀려 영리병원 재판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제1행정부가 담당하는 소송이 워낙 많다”면서 “앞서 제기된 사건들부터 먼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영리병원 재판을 열지 못하는 것이지 재판을 지연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제주지법에서 행정소송을 처리하는 재판부는 행정1부와 행정2부 등 2곳으로, 제주지법에 한해 접수하는 행정소송 사건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92건이다.

한편 녹지측은 소장에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며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할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조건부 개설 허가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용두암 가는 길 찬 바람이 부는 23일 제주시 용두암을 찾는 관광객들이 제주 겨울바다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겨울만 되면... 주요골목 노점상 점령

주민 민원 매해 되풀이 최근 3년 2900건 단속 제주시 “인력부족 때문 노점상 실질단속 한계”

겨울철이 되면서 먹거리 골목 등에는 군고구마, 어묵, 호떡 등을 파는 노점상들이 늘고 있지만, 행정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지도·계도 활동에만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저녁 제주시 연동 누에마루거리와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 학사로 골목 등을 확인한 결과 군고구마, 어묵, 호떡, 타코야키, 붕어빵 등을 파는 노점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 노점상은 주로 푸드트럭

이나 리어카 등을 이용해 길가 가장자리 한편에서 장사하고 있었다.

이처럼 날씨가 추워지면서 제주시 지역 도심지 곳곳에 노점상 영업이 많아지고 있다. 반면 이들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주변 상인과 주민 등의 민원도 끊이지 않으면서 행정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제주시 지역 노점상 단속 건수는 874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29건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만, 2017년 636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 제주시 지역 노점상 단속 건수는 총 2939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2.6건이 단속되는 꼴이다.

특히 푸드트럭 등을 이용한 노점상의 경우, 단속이 나오면 집간에 설치된 천막 등을 닫아버리면 불법 주

차 차량과 다를 바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시내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박모(41)씨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게(노점) 허가제 등을 운영해 노점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있지만, 제주도는 노점상 영업을 위한 정책이 없다”며 “행정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노점상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민원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계도 활동 위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거리가게(노점) 허가제 도입의 문제는 주변 상인과의 협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며, 아직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안전띠’ 분석 제주 사망자 3명중 2명꼴 미착용

사망률 66.7% 전국 최고

지난해 전국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3일 발표한 ‘2014~2018년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차량 교통사고로 82명이 숨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들 중 안전

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망자는 9명이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9명 중 6명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제주지역의 사망률은 66.7%로 부산(66.7%)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54%)·강원(47%)·경북(44%) 등의 순으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다. 서울과 경기도는 모두 32%였고, 세종과 광주

는 0%였다.

한국 시민의 안전띠 착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 중 중간 수준이었다. 한국은 지난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자 착용률이 30%에서 56%로 증가했다. 이는 조사 대상 42개국 중 24위 수준이었다. 1~3위를 차지한 독일·호주·캐나다 시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5~98%다.

권병운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착용률이 저조하다”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개소 제주시 “맞춤형 서비스 지원할 것”

도내 최초의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가 개소됐다.

제주시는 23일 정부 및 제주도,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주여성상담소는 앞으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를 위한 상담·치료 지원,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사례관리, 무료법률 지원 및 안내, 폭력피해 전문시설로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제주시는 올해부터 매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에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기금 50%, 도비 50%)를 교부해 운영을 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폭력피해로 인해 가정해체,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인권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22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실형 지법 “사회에 해악 크다”

지 제주와 중국을 오가며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 불법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2282억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는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범행 기간이 매우 길며 영업과 수익 규모도 매우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해경경찰서는 22일 오후 9시20분쯤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약 40km 해상에서 고래 1마리가 죽은 채 떠 있는 것을 여수선적 H호(78t, 외골이 저인양)의 선장 양모씨(62)가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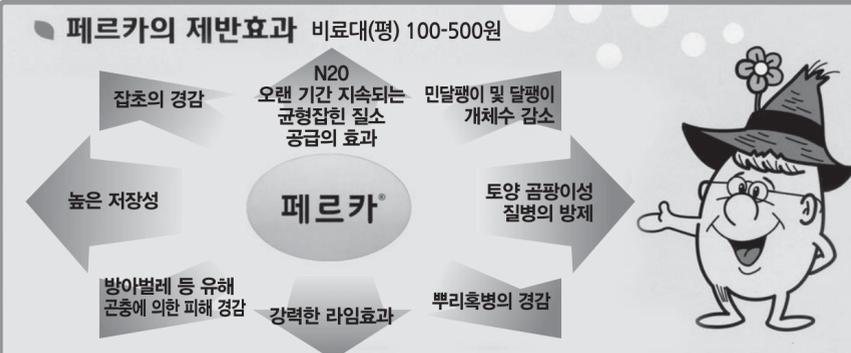
신고 받고 출동한 제주해경과 제주대학교 돌고래연구팀이 확인한 결과, 이날 발견된 고래는 밍크고래로 추정되는 암컷으로 길이 15.5m, 둘레 5.8m, 무게 약 12t이며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석기자

진정한 휴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페르카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그랜드보청기

연말연시대축제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삼촌들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감귤 신제품 분양

2020년 봄 출하 모독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향(무독)·천혜향(무독) 한라봉·탐나는중·왕금향 미니향·아마니스 제리몬(레몬)

조생 유리실생·궁천(궁천번이치) 하례 조생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모

010-2691-1883
010-3055-1885